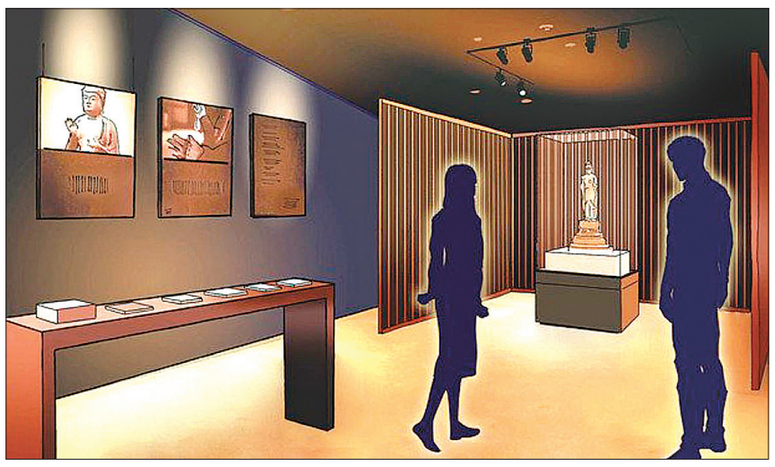
# 도쿄 중심서 선보이는 관세음보살

## 문화재급 관음상들 공개
## 시민에 문화 전파 기회

### 관음신앙 유명한 비와호 일대
### 관음당 본따 도쿄중심서 개관
### 비와호관음당 기금 마련 목적

박영빈 객원기자


도쿄 중심부에 개설될 예정인 '도쿄 나가하마 관음당' 조감도.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관음의 마을'로 유명한 일본 사가현의 나가하마(長浜) 시가 도쿄 중심에 지역 문화재급 관세음보살상을 출장 전시하는 공간 '도쿄 나가하마 관음당'을 개설한다. 불상들을 공개함과 동시에 지역 문화와 신앙을 홍보하고 관련기금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4월 10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는 관음당의 개설 소식을 특별 보도했다. 불상을 공개하는 나가하마 시는 일본 최대 호수인 비와(琵琶)호의 북쪽에 소재한 도시로 7세기경 불교문화가 자리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10세기경에는 호수에 근접한 일본 천태종 총본산인 히에이산(比叡山)의 영향과, 비와호 섬인 치쿠부시마(竹生島)의 관음성지화 영향으로 관음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잡았다. 현재 시내에만 100여 개의 관음당과 130여 구의 문화재급 관세음보살상이 산재해 지역 주민들의 신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음당의 노후화와 관리인들의 후계자 부족이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2020년 봄, 나가하마 시는 관음상 소유자, 관리인 등 대표들과 함께 '관음의 마을: 기도와 생활문화 전승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문화재 전문가들과 함께 2020년 36개소의 관음당을 조사해 관음당 수선 및 불상의 도난, 화재 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점검했다.

이 같은 필요성에 나가하마 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도쿄에서 관음상을 전시했던 '비와호 나가하마 관음하우스'를 다시 재개관키로 결정했다. 관음하우스는 당시 4년간 약 7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해 지역브랜드 가치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

이에 착안한 '도쿄 나가하마 관음당'에서는 나가하마 시에 산재한 관음당들과 관음상의 수리와 정비를 위한 기금 모금이 함께 진행된다.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8개월간 운영되는 관음당 입장료는 무료다. 대신 관음신앙 문화를 지원하는 회원제 서포터즈 조직 '나가하마 관음클럽'에 자율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비는 나가하마 관음당과 관음상들을 위한 기금으로 이용된다.

비와호 나가하마 관음하우스는 전시공간을 임대해 전시가 진행됐던 것에 비해 도쿄 나가하마 관음당은 나가하마 시에 본사가 있는 운수회사의 도쿄지사 공간을 빌려 개설된다. 나가하마 시는 지역문화를 알리고 개보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명분으로 나가하마 시 지역 인연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운수회사 도쿄지사는 시내 23개 구 중 가장 중앙에 위치한 츄오(中央)구에 위치해있다. 이는 도쿄 중심에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의의도 있다.

나가하마 시는 "전시장이 도쿄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다. 도쿄역에서 전시장까지 안내선을 부착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관음당에 가장 먼저 공개되는 관음상은 8세기경 조성된 목조성관세음보살입상이다. 관음상은 2개월 간격으로 교체되며 총 8구의 관음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나가하마시 역사문화과 오타 히로시 학예관은 "나가하마의 열성적인 관음신앙을 널리 알리고, 후대에도 관음신앙을 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길 고대한다"고 전했다.

# 中법정선사, 선차 채엽 거행

## 제다과정 스님 참여
## 2010년부터 시작해

## 다라니 정화수로 재배
## 수행용 차로 소비예정


차밭에서 염불을 외우며 밭을 정화하는 법정선사 대중 스님들. 사진출처=신화통신

예로부터 차와 불교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로 불려왔다. 옛날 뛰어난 차인(茶人)들은 스님들인 경우도 많았고 '다선일미(茶禪一味)'라는 말도 있다.

이러한 선차(禪茶)를 이어오는 사찰이 있어 화제다. 4월 8일 중국 '신화통신'은 선차를 만드는 사찰을 특별 보도했다.

항저우시 시후(西湖)에 소재한 법정선사(法淨禪寺)는 수나라 때 세워진 천년고찰로 지역에선 관음성지로 유명한 사찰이다.

대대로 차를 만들어온 법정선사는 2010년부터 사찰 차를 '법정선차(法淨禪茶)'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하고 매년 봄마다 차를 채엽하는 의례인 '개차절(開茶節)'을 봉행하고 있다.

법정선사는 "법정선차의 역사는 다성(茶聖)이라 불리는 육우의 〈다경〉에 이 지역의 사찰들이 차를 만든다고 한데서 시작한다"고 전했다.

4월 1일, 우중 봉행된 2021년 개차절에서는 법정선사 대중스님들이 범패를 부르며 향로를 앞세워 차밭으로 향했다. 스님들은 천수다라니로 정화한 물을 버들가지로 뿌리며 차밭을 돌았다. 이런 나무에 가피를 내려 정화하는 의식과 함께 개차절 예불을 봉행했다. 이어 스님들이 공식 첫 채엽을 진행했다.

채엽부터 12단계로 만들어지는 법정선차는 모두 스님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진다. 부족한 일손은 외부 차농들의 손을 빌린다. 외부 차농들이지만 이때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모두 채식을 하며 재계한다.

법정선사는 "부처님 전에 올리는 차이며, 수행의 일환으로 만드는 차이기에 특별히 신경 쓴다"고 밝혔다.

실제 차밭은 차 찌꺼기와 유기농비료만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선차는 스님들의 수행을 위해 제다되기에 시판하지 않고 사찰 내부에서 소비하고 있다.

첫 채엽을 마친 차는 그 자리에서 제다돼 불전에 공양 올려졌다. 만들어진 차는 용정차(龍井茶)라고 부르는 녹차의 일종으로 신도회와 개차절에 참석한 이들이 함께 차를 나누는 다과회에서 시음됐다. 이 개차절에서는 작은 음악회도 함께 진행됐으며 마지막 순서로는 법정선사의 후이화 스님이 즉석에서 차를 만드는 모습을 시연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 中겔룩파 최고학위 '게쎄 하람빠' 수여

## 중국 자체시험기준 통과, 13명 최종합격


티베트 스님이 라싸 조캉사원에서 열린 게쎄 하람빠 최종 토론시험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출처=차이나 데일리

티베트 불교의 4대 종단중 하나인 겔룩파의 최고 학위인 '게쎄 하람빠', 중국 '차이나 데일리'는 4월 6일 티베트 스님 13명이 게쎄 하람빠 학위를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게쎄' 학위는 티베트어로 '선지식'을 뜻하며 약 20년 간 전통강원교육 뒤, 토론과 필기시험을 거쳐 본산 방장 스님들의 심사 하에 주어지는 법계다.

이는 삼장법사에 준하는 법계로 게쎄 스님들은 각 강원의 강사와 주요 소임들을 맡는다. 이중 최고 법계는 '게쎄 하람빠'로 그 시험이 매우 엄격하고 혹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대 달라이라마 중에서도 게쎄 하람빠 학위를 받은 이는 現달라이라마를 포함 3명뿐이다.

4월 5일, 티베트 자치구 라싸 조캉사원에서 개최된 게쎄 하람빠 최종 토론시험에서는 13명의 응시자가 게쎄 하람빠를 취득했다.

새로 게쎄 하람빠가 된 스님들은 티베트 자치구와 운남, 사천, 청해성 등지의 티베트족 자치주에 산재한 12곳의 주요 사원과 강원에서 수학한 스님들이다. 지난해 9월 라싸 데붕사원에서 진행된 시험응시자격 시험에서 통과된 23인의 스님들 중 절반 이상이 합격한 것이다. '차이나 데일리'는 이번 시험에서는 라싸의 라뙤 사원에서 응시한 롭상 땐다르 스님이 수석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험은 중국 정부의 중앙소수민족 · 종교문제 위원회 주도 하에 2004년 제정된 게쎄 시험 표준안에 따라 진행됐다. 이 시험에는 티베트어 경전뿐만 아니라 한문경전에 대한 필기와 토론시험이 포함돼 있다.

반면 인도에 망명 중인 티베트 불교계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부의 개입없이 교계 자체시험을 진행한다. 2018년 중국정부는 인도에서 게쎄 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온 스님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원에서 추방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 태국 스님, 수중동굴서 나흘만에 구조

## 수행을 위해 동굴에 들어가 폭우에 고립


구조대원이 마나스 스님의 혈압을 재고 있다. 사진출처 = BBC뉴스

영국 주요 언론지 '가디언지'와 'BBC' 등은 4월 8일 태국 구조대원들이 나흘 동안 침수된 동굴 안에서 스님을 구조했다고 보도했다.

구조된 스님은 프라 아잔 마나스(Pra Ajarn Manas, 46) 스님으로 이 스님은 명상을 위해 핏사눌록에 있는 프라 사잉감( Phra Sai Ngam) 동굴에 들어갔다가 비계절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고립됐다.

현지 주민들은 "스님은 매년 성지로 알려진 동굴들을 순례하며 명상을 해왔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집중 호우에 동굴에 들어간 스님이 돌아오지 않자 주민들은 당국에 신고했으며, 동굴에 고립된 스님을 구조하기 위해 17명의 다이버들이 자원해 들어갔지만 수위가 높아져 구조를 멈춰야 했다. 구조대는 스님에게 식량이나 적절한 보온대책이 없기 때문에 체력 고갈과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을 것을 가장 우려했다.

다행히 11일 비가 그치고 7명의 다이버가 동굴 속에서 극적으로 스님을 구조했다. 스님은 체온이 떨어지고 약간 탈진증상이 있었지만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모습으로 발견됐다. 동굴 내 높은 곳에 위치해 저체온증 문제는 없었다.

구조소식을 들은 태국인들은 2018년 태국 북부 치앙라이 동굴에 2주간 고립됐던 청소년 축구팀을 상기했다. 당시 태국 네이비실즈와 동굴 다이버 그리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라진 축구팀 아이들을 구조한 바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II·III
148×243㎜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
143×204㎜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II·III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I·II·III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3-2212-8655-3 (예금주 : 윤순례)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